

작품 내용

제 목	별과 별 사이
내 용	밤하늘의 별은 누구의 것도 아니어서 우리는 오래도록 같은 별을 나누어 보았다 다만 어느 밤 한 사람이 별과 별 사이에 처음으로 선 하나를 그어 보았다 그가 국자를 뜨고 곰 한 마리를 걸어 두어도 하늘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가 가진 것은 별이 아니라 그 선이어서 같은 별에 나는 다른 선을 그어도 좋았다 누군가는 그 별들로 강물을 흘려보냈고 누군가는 그 물가에 나룻배를 매어 두었다 남의 선을 그대로 덧그리는 손만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를 지우지 않고 나란히 빛났다 별을 가진 사람은 여태 아무도 없지만 잇는 손길은 저마다 다른 별자리를 짓는다 오늘 밤 하늘에는 아직 이어지지 않은 별이 가득해서 그 빈 사이는 네가 그을 단 하나의 선을 기다린다